

# “배움의 즐거움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칠 것”

■ 이주희 신임 동신대학교 제9대 총장  
‘학생 행복’ ‘지역과의 상생’ 강조  
구성원에 다양한 소통 채널 약속



이주희 신임 총장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도 제시했다.

이 총장은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데서 동신대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며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지, 지역사회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의학연구, 바이오센터, 국가지원사업, 특성화 연구 등을 통한 지역 산업 적극 지원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사회와 공유 ▲지역 소외계층과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안전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민의 특성과 사회 수요를 충족시키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소통’을 약속했다.

이 총장은 “소통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정책과 제안 공모를 통해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을 만들



이주희 동신대학교 제9대 총장이 지난 15일 동신대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필식 이사장으로부터 교기를 넘겨받은 뒤 새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다”며 “발전적 아이디어와 도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 보상체계 등을 통해 다함께 신명 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조직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동신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지난 5월3일 학교법인 해인학원 이사

회의 총장 선임 결정에 이어 같은 달 25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동신대 제9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2026년 7월14일까지 4년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호남대, AI융합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3년 연속 '대학-AI특성화부문 대상'...국내 유일

국내 유일의 'AI특성화대학'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2022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제에서 3년 연속 '대학-AI(인공지능)특성화부문 대상'을 받았다. (사진)

호남대는 최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시상제에서 AI융합 혁신교과과정 개편과 AI캠퍼스 구축을 통해 전교생을 AI융합인재로 양성해온 노력과 '국민 AI융합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AI대중화 교육' 선도 등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학-AI(인공지능)특성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호남대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가서비스대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우수 서비스를 선정하는 시상제로 ▲서비스 경쟁력 및 비전 ▲산업적·사회적 기여도 ▲운영성과 ▲지속 가능 경영계획 평가 등의 엄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국내 최고의 AI 특성화대학임을 3년 연속 공인받은 호남대학교는 AI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등을 통해 정부의 'AI국가전략', 광주시의 'AI중심도시' 전략에 발맞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

고 있다.

지난 2019년 총장 직속으로 'AI중심대학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AI교육센터와 AI빅데이터연구소를 두 축으로 AI융합캠퍼스를 구축, 전교생을 AI융합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전교생이 15학점 이상의 AI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혁신적인 교과과정 개편과 맞물려 전국대학 최초로 구축된 AI캠퍼스는 12개의 AI전용 강의실과 스마트 강의실, 노트북과 전자교탁 등 최첨단 교육시설과 장비를 자랑한다.

특히 AI교육센터는 AI기초프로그래밍과 딥러닝 기본교육, 영상·음성·언어인지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센서 기술 등을 구현하는 SW개발 실습장으로, AI빅데이터연구소는 AI융합/AI연계응용기술(의료, 헬스케어, 스포츠 등), 빅데이터 및 응용(통계, 플랫폼 포함), IT기술전반(IoT, 임베디드, 클라우드, 로봇, 드론, 이동통신 등)의 연구 산실로 활용되고 있다.

호남대학교는 교육부 정보통신특성화대학(1997년), 대학종합평가 전국 최우수대학(1999년)으로 선정돼 'IT 대한민국'을 일군 최우수 인재를 배출해 왔으며, 지방대특성화(CK-1)사업 6관왕(2014년) 등 국책사업을 석권했다.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



개선대학에 선정(2021년)된 최고의 강소대학이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1978년 '육영보국'을 설립이념으로 반세기 동안 시대를 앞서 혁신교육을 이끌어온 호남대학교가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드림(DREAM) 2028' 장기발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며 "전교생을 AI융합인재로 키워 '넥스트 챔피언'을 양성하고 인프라 확충, 산학협력 등을 통해 '학생이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의 비전을 실현해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강대 '모듈형 트랙제' 교육과정 도입 “AI 인공지능 시대 이끌 융복합 인재 육성”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AI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실력 있는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 중심의 '모듈형 트랙제'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동강대는 2023학년도부터 공학계열 7개 학과를 AI융합전공 교육과정 모듈형 트랙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트랙제는 ▲AI융합기계과 ▲AI드론과 ▲AI융합전기과 ▲AI미래자동차과 ▲스마트건설토목과 ▲건축과 ▲소방안전과 등 7개 학과가 참여한다.

동강대는 모듈형 트랙제를 기반으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정착시켜 사회 트렌드에 맞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학생들이 입학 시 전공 학과에 제한하지 않고 학과별 세부전공으로 구성된 트랙을 자신의 진로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한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학과에 편성된 트랙으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전공과 상관없이 타 학과의 트랙 교육과정 수업을 함께 이수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강대 교육혁신원은 학과별 세부 전공 과목인 모듈과 모듈로 구성된 트랙을 2-3개씩 편성하는 등 매뉴얼을 개발했다.

또 조만간 공학계열 7개 학과와 함께 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효과 높은 트랙제 세부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추후 동강대는 트랙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프로그램이 정착되면 모듈 1개씩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전공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등 트랙제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미 교육혁신원장은 "7월 중 AI융합 학과를 중심으로 트랙제 운영 방향의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하고 학생들이 사회 트렌드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커나가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는 오는 9월13일부터 10월6일까지 공학, 자연과학, 인문사회, 예·체능 등 4개 계열, 21개 학과에서 2023학년도 수시1차 모집을 진행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돈돈한 지키자** 손해보험협회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